

로컬푸드를 통한 지역사회 활성화

이병서/농촌진흥청

1. 지역중심 차별적 생산유통시스템 확장 추세

- 대량유통체계 확장과정에서 먹을거리 생산-소비의 단절현상에 따른 먹을거리의 지나친 획일화 등 문제점 노출로 반성의 시각이 대두되어 최근 로컬푸드에 대한 관심 증가
- 원거리 대량유통체계 확산에 따른 외부불경제 효과를 계산하는 경향이 늘어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수요증가 경향 등에 따라 로컬푸드에 대한 관심이 점점 증가할 것으로 전망
 - 지역이 담고 있는 문화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, 먹을거리는 미래에도 여전히 중요한 메가트렌드
- 소비자 인식과 소비트렌드 등에 맞춰 다양한 유형이 탄생할 전망
- 국토자원과 지역사회의 건강한 유지를 위해 소농의 역할 공감

2. 로컬푸드 관련 개념, 유형, 효과 등 기본틀 정립 선행

- 로컬푸드가 무엇을 추구하는 것이고, 누구에게 어떤 가치를 창출하므로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것인지 공감과 합의 선행
 - 현재 로컬푸드에 관해 개념, 범위, 유형 등에 혼선이 존재
 - 다양한 로컬푸드(시스템)가 각 주체별 어떤 효과가 있을지 푸드체인 전반에 대해 분석하여 방향정립 및 사업추진
- 푸드체인 전반의 주체별 경제적·비경제적 측면의 예상변화 검토

3. 로컬푸드 활성화 전략

-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해서는 생산자 소비자간 소통 활성화 중요
 - 특히 생산자 소비자간 다양한 대면방식의 중요성 강화
 - 로컬푸드를 도농교류 확대의 중요한 연결고리로 활용
- 로컬푸드 인식제고 및 활성화의 중요 축인 소비자그룹에 조기 확산하기 위해서는 소비자단체와 파워블로거를 활용하여 로컬푸드 관련 콘텐츠를 공유하고 홍보하는 전략이 필요하며, 소비자그룹을 지역의 우수한 로컬푸드 탐방기획까지 추진할 필요성
 - 초기 활성화를 위해서는 농가맛집과 향토음식점 탐방 기획시리즈 등 다양한 이벤트를 대중매체와 공동으로 마련할 필요
- 학생을 포함한 국민대상 올바른 먹을거리 교육 강화
- 지역단위에서 로컬푸드 활성화 사업을 지원하는 전문교육과정 마련
- 로컬푸드의 새로운 가치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기반 마련
 - 국가적 로컬푸드 데이 지정
 - 로컬푸드 정보를 종합관리하는 정보시스템 운영으로 조기 활성화
- 로컬푸드 유형별 국내외 우수사례 확산
- 먹고 보고 체험하면서 복합적으로 즐기는 요소를 특색있고 차별성 있는 방식으로 추진하면 가능성
- 모든 유형의 로컬푸드 활성화 추진보다는 한국의 지역·국토여건, 농식품 여건, 생산자 소비자의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바람직한 유형을 중심으로 우선 활성화되도록 방향 정립 및 추진
 - 지역별 특성을 살리는 전략이면서, 먹을거리, 볼거리, 체험거리 등이 복합되고, 직접적 체험과 소통을 전제로 한 로컬푸드 유형 개발 및 활성화가 로컬푸드 시장확대 차원에서 우선순위로 판단
- 유통효율성 고려보다 최종 소비자들의 진정한 선호를 되찾아주는 전통맛, 농산물 고유 맛을 복원하는 로컬푸드 발굴 활성화
 - 대량유통으로 인한 획일화를 지양한 먹을거리 수요는 증가할 전망
 - 옛 방식의 로컬푸드 복원 지원 : 전통의 맛, 먹을거리 고유의 맛 등

- 어디서나 구할 수 있는 획일화된 먹을거리보다 고객입장에서 차별화 요소로 느껴지는 요소들을 결합한 형태 개발
 - 지역(로컬)이어야만 경험할 수 있는 장점을 포함한 유형, 사업 등